

##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이용 실태와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분석\*

김 선 희\*\*

광주 실로암센터

정 은 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 《 요 약 》

---

이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 실태와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계절학교 운영기관 전체 3개소의 총 25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은 수급권자에게 선정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중증아동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계절학교에 대한 홍보는 적절하였고 계절학교는 부모의 스트레스 경감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본생활습관형성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둘째, 계절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계절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출석과 안전관리, 수업시간 준수 등에 있어서 높았으며 자녀가 계절학교에 대해 흥미로워 한다고 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구성 시 수요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랐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 사항으로는 계절학교 운영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비수급권 아동에게도 동등한 기회제공을 원하였다. 반편성은 법정 정원을 따르되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고려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현직교사의 더 많은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평가방법으로는 학부모참관수업을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계절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first0802@naver.com

\*\*\* 교신저자(eunheej@chosun.ac.kr)

## 1. 서론

2012년부터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매달 토요일과 방학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여가 활동은 단순히 남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자기 발전을 위한 활동이며, 여가 경험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청소년기 학생에게 있어서 여가는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다. 건전한 여가 선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발달하면서도 능동적인 인간이 되게 하고, 규칙이나 공정성을 존중하도록 배우게 하며, 타인과의 협동정신을 기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지도력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박말순, 2003; 전대준, 2005; 한혜경, 2005).

그 중 가장 긴 여가 시간을 가지는 시기는 방학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게 방학은 여가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습득해야 할 교육 내용이 많다. 장애학생에게 방학은 한 학기동안 몸에 익힌 기본생활 습관을 실행해보고 배웠던 기초학습 내용을 복습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며 그 밖의 여러 영역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방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학생들은 방학 중 대부분 집에서 주로 TV시청과 컴퓨터 오락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박말순, 2003; 최진희, 1994). 한혜경(2005)은 정신지체학생의 방학 중 여가활동 연구에서 자전거나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활동도 하지만 주로 낮잠 자기, 낙서 등과 휴식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장애학생의 여가 활동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부족하며,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생활리듬이 깨지는 일이 빈번하다(신일근, 2009).

또한 긴 방학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 장애아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함께 정서적, 행동적 및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일상생활 능력의 결여나 저하, 대인관계 형성의 곤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양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이재혁, 김희영, 이종화, 2007).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인 체력 소모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지속적인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양귀화, 2001), 사회적 지원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강선경, 2002).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어용숙, 윤치연, 2008).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방학에 대하여 부담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더구나 중도·중복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하루 종일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학은 부모에게 힘든 기간이 된다.

여가 활동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비장애아동의 부모보다도 극심한 양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장애아동 부모에게 여가활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활동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제약 요인이 있다. 장애아동을 평생 돌봐야 하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재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이를 위해서는 방학 기간이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적당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여건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요구와 필요에 의해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방학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제 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2008~2012)에 따라 방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운영하였다. 그 후 2009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방학프로그램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4주 동안 방학 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그 목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목적을 공유하지만 명칭과 내용, 운영방법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늘해랑학교’(http://www.goe.go.kr), 강릉교육지원청은 ‘가온누리학교’로 부른다(영동-INT 2015. 1. 15.).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초기에는 ‘방학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계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계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운영기간은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1주에서 4주까지 다양하며, 참여 학생 선정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과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경상북도교육청(http://www.gbe.kr/)의 경우 중증장애, 기초수급권자를 우선 선정한다. 계절학교 지도 교사는 지역에 따라 현직교사, 특수교육과 및 치료관련 학과의 재학생,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계절학교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라는 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실태와 수요자의 만족도를 점검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절학교 참여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실태를 직접 알아보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계절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적인 요구를 파악해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계절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기도 계절학교 장애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김용식, 2011), 대구·경북 지역 학부모의 요구 조사(최정자, 2011), 특수학

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 조사(남광숙, 201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학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여선옥, 2013)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계절학교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고 몇몇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절학교의 운영 목적은 각 지역마다 유사하나 그 내용과 방법은 지역적으로 다양하므로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계절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운영을 희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방학 동안의 교육과 보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 실태와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의 계절학교 학부모 전체이다. 계절학교 학부모는 총 288명이며, 설문지는 아동 편에 각 가정에 배부되어 총 256부(88.9%)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53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인 학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의 응답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210명(83%), 조부모가 8명(3.2%), 친척이 3명(1.2%)이었다. 기타가 2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공동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학부모의 연령은 40대가 168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3명(17%), 30대가 24명(9.5%), 20대 9명(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86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68명(26.9%), 자영업이 38명(15.0%), 시간제부업이 30명(11.9%), 기타 21명(8.3%), 10명(3.9%)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수급권자가 96명(37.9%), 기초수급권자가 70명(27.7%), 차상위계층이 25명(9.9%), 조손가정이 3명(1.2%), 기타가 15명(5.9%), 무응답자가 32명(12.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253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아동과의 관계	부모	210	83.0
	조부모	8	3.2
	친척	3	1.2
	기타	24	9.5
	무응답	8	3.2
학부모 연령	20대	9	3.6
	30대	24	9.5
	40대	168	66.4
	50세 이상	43	17.0
	무응답	9	3.6
학부모 직업	회사원	68	26.9
	자영업	38	15.0
	전업주부	86	34.0
	시간제부업	30	11.9
	기타	21	8.3
	무응답	10	3.9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	기초수급권자	70	27.7
	차상위계층	25	9.9
	한부모가정	12	4.7
	조손가정	3	1.2
	비수급권자	96	37.9
	기타	15	5.9
	무응답	32	12.6

##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탐색을 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계절학교, 방학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남광숙(2011), 여선옥(2013), 최정자(2010)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 하여 총 56문항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차 완성된 설문지에 대해 주제 부합도, 문항중복, 내용의 적절성, 문장의 난이도 등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 현장특수교사 1명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얻은 후 수정·보완하여 2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후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주제부합도, 문항의 이해도와

#### 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설문 시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의 최종 검증 후 최종 39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학부모의 기초사항, 계절학교의 이용 실태, 만족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의 4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및 내용

구분	설문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질문 형식
I. 기초사항	학부모에 관한 사항	4	I.1- I.4	선택형, 기술형
II. 이용실태	아동에 관한 사항, 이용 기간, 반편성 인원과 기준, 교사에 관한사항, 선택기준과 참여 이유, 실시장소, 미 참여 시 자녀의 보호, 통학방법, 계절학교 참여로 인한 부모와 아동의 변화	15	II.1- II.15	선택형, 기술형
III. 학부모의 만족도	자녀에게 도움의 정도, 다른 사람에게 권유정도, 자녀의 흥미도, 홍보, 부모의견 반영정도, 운영기간, 출석, 장소, 식사, 통합방법, 수업시간 준수, 수업충실도, 교사의 질, 프로그램의 적절성	14	III.1- III.14	5점 척도
IV. 학부모의 요구사항	계절학교의 필요성과 이유, 운영기간, 반 편성 인원과 기준,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지도교사, 평가 방법, 건의사항	6	IV.1- IV.6	선택형, 기술형
계		39문항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계절학교 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문헌탐색을 통해 1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전문가의 자문과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겨울학기 계절학교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계절학교의 교사들의 안내로 각 아동의 학부모에게 전달되었으며, 회수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완료되어 수합된 최종 253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SPSS 21.0 을 이용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연구대상의 특성과 의견을 파악하였다. 복수응답을 요하는 문항에 대하여는 반응백분율과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계절학교 이용 실태

##### 1) 계절학교 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

계절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은 <표 3>과 같이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155(61.2%)명으로 여자 93명(36.8%)보다 더 많다. 그 중 초등학교 과정이 70명(27.0%), 중학교 과정이 99명(39.0%), 고등학교 과정이 80명(32.0%)이다. 배치유형은 특수학교가 112명(44.3%), 특수학급 100명(39.5%), 일반학급 28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교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형제가 있는 아동은 209명(82.6%)이고 외동인 경우가 40명(15.8), 무응답자가 4명(1.6%)이다.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급의 장애를 지닌 아동은 127명(50.2%)을 차지하고 있으며 2급은 86명(34.0%), 3급과 4급은 각각 28명(11.1%), 1명(0.4%)이다.

<표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N=253)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55	61.2
	여자	93	36.8
	무응답	5	2.0
학년	초등학교	70	27.0
	중학교	99	39.0
	고등학교	80	32.0
	무응답	5	2.0
	일반학급	28	11.1
배치유형	특수학급	100	39.5
	특수학교	112	44.3
	기타	6	2.4
	무응답	7	2.7
형제관계	유	209	82.6
	무	40	15.8
	무응답	4	1.6
장애등급	1급	127	50.2
	2급	86	34.0
	3급	28	11.1
	4급	1	0.4
	무응답	11	4.3

##### 2) 계절학교 이용 기간

계절학교 이용기간은 4주가 162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3주 76명(30.0%), 2주

4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7명(2.8%), 1주 1명(0.4%), 기타 2명(0.8%), 무응답 5명(2.0%)로 나타났다.

3) 반 편성 인원과 기준

반 편성 인원과 기준은 <표 4>와 같이 5명에서 10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175명(69.2%), 20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8명(3.1%), 10명에서 15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명(2.8%)이며, 5명 미만으로 답한 응답자는 39명(15.4%)이다.

반편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학교급별 학년에 따라’라고 답한 응답자가 79명(31.2%)이며, ‘학년 구분 없이 수준에 따라’ 나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명(28.1%), ‘초·중·고 과정에 따라’ 나눈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명(23.7%)이며, ‘희망프로그램에 따라’라고 답한 응답자가 13명(5.1%)이다. 기타 의견은 8명(3.2%)이다.

<표 4> 반 편성 인원과 기준

구분	빈도(n)	백분율(%)	구분	빈도(n)	백분율(%)		
반 편 성 인 원	5명 미만	39	15.4	반 편 성 기 준	학교급별 학년별	79	31.2
	5~10명	175	69.2		학년 구분 없이 수준별	71	28.1
	10~15명	7	2.8		초·중·고 과정별	60	23.7
	15~20명	1	0.4		희망 프로그램	13	5.1
	20명 이상	8	3.1		기타	8	3.2
	무응답	23	9.1		무응답	22	8.7
합계	253	100.0	합계	253	100.0		

4) 계절학교의 교사

계절학교의 지도교사가 누구인가에 관해 물었으며 중복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계절학교의 교사

구분	빈도(n)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현직교사	12	4.1	5.0
특수교육과 및 치료관련학과 학생	159	53.9	65.7
치료사	26	8.8	10.7
사회인 자원봉사자	52	17.6	21.5
특수교육대상학생부모	2	0.7	0.8
잘 모르겠다	34	11.5	14.0
기타	10	3.4	4.1
합계	295	100.0	121.9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과 및 치료관련 학과 학생이라고 한 응답자가 159명(53.9%)이며 사회인 자원봉사자 52명(17.6%),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

한 응답자가 34명(11.5%), 치료사가 26명(8.8%), 현직교사가 12명(4.1%), 기타 응답이 10명(3.4%)으로 나타났다.

### 5)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계절학교를 선택한 이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계절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중복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거리상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08명(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78명(18.3%), 기관에 대한 신뢰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74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계절학교 선택 이유

구분	빈도(n)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거리상 편의	108	25.3	42.7
잘 갖춰진 시설	24	5.6	9.5
좋은 프로그램	78	18.3	30.8
운영 시간	51	12.0	20.2
운영 기간	51	12.0	20.2
기관에 대한 신뢰	74	17.4	29.2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4	8.0	13.4
기타	6	1.4	2.4
합계	426	100.0	168.4

### 6) 계절학교 실시 장소

현재 다니고 있는 계절학교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특수학교인 경우가 173명(68.4%), 일반학교가 26명(10.3%),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5명(9.9%), 복지관이 24명(9.5%), 기타가 2명(0.8%)이며, 무응답자가 3명이다.

### 7) 계절학교의 필요성과 이유

계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렇다면 어떠한 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과 같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01명(79.4%), ‘필요하다’가 48명(19.0%)으로, 총 98.4%의 많은 학부모들이 계절학교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계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34.4%의 학부모가 자녀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서(16.2%),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4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으로 학부모의 안정된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12.3%), 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11.4%), 방학 중 자녀보호를 통한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서(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 계절학교의 필요성과 그 이유

구분	빈도(n)	백분율(%)	구분	빈도(n)	백분율(%)		
계절학교의 필요성	매우 필요	201	79.4	계절학교 필요 이유	학부모 스트레스 경감	29	11.4
	필요	48	19.0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31	12.3
	그저 그렇다	1	0.4		자녀의 교육욕구 충족	41	16.2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4		자녀의 건전한 여가 선용	87	34.4
	미응답	2	0.8		사교육비 부담 경감	2	0.8
	합계	253	100.0		양육 부담 경감	27	10.7
	-	-	-		자녀의 사회성 발달	35	13.8
	-	-	-		무응답	1	0.4
	-	-	-		합계	253	100.0

8) 계절학교 미 참여시 방학 중 자녀 돌봄 방법

자녀를 계절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방학동안 어떻게 자녀를 돌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표 8>과 같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돌본다는 응답이 88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실 또는 복지관에 다닌다는 응답이 62명(24.5%),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58명(2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 계절학교 미 참여시 방학 중 자녀 돌봄 형태

구분	빈도(n)	백분율(%)
가족이나 친척	88	34.8
집에서 혼자 지냄	58	22.9
치료실/복지관에 다님	62	24.5
활동보조원이 돌봄	19	7.5
기타	21	8.3
무응답	5	2.0
합계	253	100.0

### 9) 계절학교 참여 경로와 안내 여부

계절학교 참여 경로가 어떠한지 그 안내가 충분하며 적절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이 서면 통지문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138명(54.5%)로 가장 많았고, 학교 교사의 안내가 48명(19.8%), 지인 소개가 26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교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과 접수 과정에서 프로그램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았는가에 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206명(81.4%),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이 44명(17.4%)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자가 3명(1.2%)이다.

<표 9> 계절학교 참여경로와 안내여부

구분			구분				
구분	빈도(n)	백분율(%)	구분	빈도(n)	백분율(%)		
참여 경 로	학교 홈페이지	14	5.5	총 분 한 안 내 여 부	예	206	81.4
	서면 통지문	138	54.5		아니요	44	17.4
	지인 소개	26	10.3		무응답	3	1.2
	학교 교사	48	19.0		합계	253	100.0
	기타	23	9.1		-	-	-
	무응답	4	1.6		-	-	-
	합계	253	100.0		-	-	-

### 10) 계절학교의 통학방법

계절학교 이용자의 통학방법을 알아본 결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197명(77.9%)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이 18명(7.1%), 도보 또는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14명(5.5%)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가 21명(8.3%)이다.

### 11) 계절학교 참여로 인해 학부모와 자녀가 얻게 된 좋은 점

자녀의 계절학교 참여로 인해 학부모가 얻게 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에 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양육부담이 경감된다는 응답이 82명(32.4%),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78명(30.8%), 학부모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가 62명(24.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학교 참여 후 자녀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123명(48.6%)이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 된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79명(31.2%)이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의 효과가 있다'에 응답하였다. 그 밖에 '학기 중의 교육과 연결하여 학습능력이 향상 된다'가 20명(7.9%)으로 나타났다.

<표 10> 계절학교 참여로 인해 학부모와 자녀가 얻게 된 좋은 점

학부모 측면에서의 잇점			자녀 측면에서의 잇점		
구분	빈도 (n)	백분율 (%)	구분	빈도 (n)	백분율 (%)
양육 부담 경감	82	32.4	기본생활 습관 형성	123	48.6
여가시간 활용	62	24.5	학습 능력 향상	20	7.9
사회활동 가능	78	30.8	특기/적성 능력 향상	10	4.0
사교육비 부담 경감	10	4.0	사회성 향상/정서적 안정	79	31.2
잘 모르겠다	15	5.9	잘 모르겠다	11	4.3
무응답	6	2.4	무응답	10	4.0
합계	253	100.0	합계	253	100.0

## 2.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 1) 계절학교 전반에 관한 만족도

계절학교 전반에 관한 만족도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가 계절학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133명(51.0%)이 ‘그렇다’고 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65명(36.0%), ‘보통’이라는 답변이 46명(18.2%)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계절학교를 권유 하겠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51%인 129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매우 그렇다’가 36%(91명)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계절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는가를 질문에 대한 응답은 46.2%인 117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도 41.1%(104명)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12> 계절학교 전반에 관한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무응답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에게 도움되는 정도	1(0.4)	5(2.0)	46(18.2)	133(52.6)	65(25.7)	3(1.2)	253
2 다른 사람에게 권유 정도	3(1.2)	3(1.2)	24(9.5)	129(51.0)	91(36.0)	3(1.2)	253
3 자녀의 흥미도	4(1.6)	2(0.8)	18(7.1)	104(41.1)	117(46.2)	8(3.2)	253

### 2) 계절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

계절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 결과는 <표 13>과 같다. 계절학교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가 13.8%(35명), ‘그렇다’가 51.4%(130명), ‘보통’이 26.1%(66명), ‘그렇지 않다’가 5.5%(14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1.2%(3명)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 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가 7.9%(20명), ‘그렇다’라는 의견이 99명으로 39.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 34.4%(87명), ‘그렇지 않다’가 14.2%(36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명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자가 10명(4.0%)이었다.

<표 13> 계절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

N=253

문항내용	빈도(%)					무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홍보의 적절성	3(1.2)	14(5.5)	66(26.1)	130(51.4)	35(13.8)	5(2.0)
2 프로그램 구성 시 의견 반영	1(0.4)	36(14.2)	87(34.4)	99(39.1)	20(7.9)	10(4.0)
3 운영기간의 적절성	2(0.8)	24(9.5)	49(19.4)	131(51.8)	44(17.4)	3(1.2)
4 출석과 안전관리	4(1.6)	3(1.2)	31(12.3)	145(57.3)	65(25.7)	5(2.0)
5 장소와 환경의 적절성	3(1.2)	5(2.0)	32(12.6)	143(56.5)	65(25.7)	5(2.0)
6 점심식사 식단의 만족도	4(1.6)	1(0.4)	51(20.2)	143(56.5)	47(18.6)	7(2.8)
7 통학방법의 만족도	6(2.4)	5(2.0)	27(10.7)	120(47.4)	92(36.4)	3(1.2)

계절학교의 운영기간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1.8%(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19.4%(49명),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7.4%(44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5%(24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0.8%(2명)로 나타났다.

출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57.3%(145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5.7%(65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계절학교의 장소와 환경은 적절하였는가에 대해서는 56.5%(143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25.7%(65명)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다. 한편, 점심식사 식단 만족도에 관하여는 56.5%(143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보통’은 20.2%(51명), ‘매우 그렇다’ 18.6%(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학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7.4%(120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36.4%(92명)로 나타났다. ‘보통’은 10.7%(27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6명), ‘그렇지 않다’가 2.0%(5명)이었다.

### 3) 계절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계절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표 14>와 같이 수업시간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151명(59.7%),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7명(26.5%)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충실히 수업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결과는 55.7%인 14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매우 그렇다’ 역시 27.3%(69명)로 나타났다. 교사의 질에 대해 만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126명(49.8%),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9명(27.3%)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내용이 적절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53.4%(135명), 24.9%(63명)으로 나타났고, ‘보통’이 17.0%(43명), ‘그렇지 않다’가 2.4%(6명)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명(0.8%)이다.

<표 14> 계절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N=253

문항내용	빈도(%)					무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시간 준수 여부	3(1.2)	5(2.0)	23(9.1)	151(59.7)	67(26.5)	4(1.6)
2 수업진행 충실도	3(1.2)	4(1.6)	29(11.5)	141(55.7)	69(27.3)	7(2.8)
3 교사의 질	3(1.2)	4(1.6)	46(18.2)	126(49.8)	69(27.3)	5(2.0)
4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0.4)	36(14.2)	87(34.4)	99(39.1)	20(7.9)	10(4.0)

### 3.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

#### 1) 운영 기간

계절학교의 적절한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214명(84.6%)이 4주일을, 35명(13.8%)이 3주일을 희망하였다. 그 밖에 1주일은 1명(0.4%), 무응답(1.2%)로 나타났다.

#### 2) 반 편성 인원과 기준

계절학교의 반 편성 인원은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표 15>와 같이 6명에서 10명이 좋겠다고 한 비율이 47.8%(121명),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44.7%(1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교의 반 편성 기준에 관하여는 학년별 편성을 원하는 학부모가 34.8%(88명)로 가장 많았고 학년 구분 없이 수준별 편성을 원하는 학부모가 31.2%(79명)로 나타났다. 초·중·고 과정으로 각각 통합하여 반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16.2%(41명), 희망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9.9%(25명), 반(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6.3%(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기타 의견이 3명으로 나타났다.

<표 15> 반 편성 인원과 기준

구분	빈도(n)	백분율(%)	구분	빈도(n)	백분율(%)		
반 편성 인원	5명 미만	113	44.7	반 편성 기준	학년별	88	34.8
	6~10명	121	47.8		수준별	79	31.2
	10~15명	9	3.6		학교 급별	41	16.2
	15~20명	2	0.8		희망 프로그램별	25	9.9
	20명 이상	5	1.9		반 특성을 살려서	16	6.3
	무응답	3	1.2		기타	3	1.2
	합계	253	100.0		무응답	1	0.4
	-	-	-		합계	253	100.0

### 3)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계절학교 프로그램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표 16>과 같이 답하였다. 253명의 전체 응답자 중 109명(43.1%)의 학부모가 1순위로 지역사회적응 및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응답이 47명(18.6%), 특기적성 교육과 사회성 교육에 대해서는 각각 37명(14.6%)와 36명(14.2%)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직업교육은 16명(6.3%), 교과보충 교육이 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

구분	빈도(n)	백분율(%)
교과보충교육	6	2.4
자립생활	47	18.6
특기적성교육	37	14.6
진로 및 직업교육	16	6.3
지역사회적응 및 체험학습	109	43.1
사회성 교육	36	14.2
무응답	2	0.8
합계	253	100.0

계절학교에서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유 기술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를 <표 16>의 영역에 맞추어 유목화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한 계절학교 프로그램

영역	상세내용
교과보충교육	수준별 보충 학습 지도, 기초학습기능,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연령과 특성에 맞는 성교육.
자립생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식사지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자조기술,
특기적성교육	요가, 스트레칭, 다이어트 프로그램, 댄스프로그램, 음악 줄넘기, 승마, 골프, 게임, 놀이 활동. 사물놀이, 난타, 악기교육(피아노, 우쿠렐레). 만들기, 그리기, 종이접기 등의 미술활동. 원예활동, 요리활동, 컴퓨터 활용능력.
진로 및 직업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적응 및 체험학습	지역사회 적응훈련, 캠프활동, 야외활동, 견학,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보기 등의 체험 활동, 음악회나 공연 관람.
사회성 교육	사회성교육,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학부모 참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 4) 희망하는 계절학교 지도교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방학 중 계절학교를 누가 지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8>과 같다. 126명(49.8%)이 특수교육과 학생, 현직교사 60명(23.7%), 치료사가 43명(17.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명(2.8%) 등으로 나타났다.

<표 18> 희망하는 계절학교 교사

구분	빈도(n)	백분율(%)
현직교사	60	23.7
특수교육과 학생	126	49.8
치료사	43	17.0
자원봉사자	4	1.6
특수교육대상학생부모	1	0.4
잘 모르겠다	7	2.8
기타	8	3.2
무응답	4	1.5
합계	253	100.0

#### 5) 운영에 대한 평가방법

계절학교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109명(43.1%)이 학부모의 수업참관을 선택하였다. 학부모 설문지 방법은 82명(32.4%), 교장·교감·교사의 수업참관 44명(17.4%), 기타 18명(7.2%)으로 나타났다.

### 6) 계절학교에 대한 기타 건의 사항

계절학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공통된 내용끼리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건의사항에 관한 설문지의 답변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선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28건이다. 다음으로 통학에 대한 사항과 지도교사에 대한 사항이 17건, 운영기간과 시간에 관한 사항이 16건이며, 학부모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이 10건, 수업에 관한 사항이 4건이다. 그 밖의 사항은 18건으로 그중 현재 계절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감사하다는 답변도 10건으로 나타났다.

<표 19> 계절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영역	건의 사항
지도교사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마다 예비교사를 위한 슈퍼바이저가 상근할 수 있으면 좋겠음.</li> <li>• 학생의 장애정도와 유형이 다르므로 각별한 관심 필요.</li> <li>• 특수교사가 가르쳤으면 좋겠으며, 사명감 있는 교사 선별이 필요.</li> <li>• 예비교사가 짧은 시간에 학생들을 파악하기 어려움.</li> <li>• 봉사하는 마음 보다는 정말로 교사가 된 것처럼 진지하게 아이들을 돌봐 주길 바람.</li> </ul>
운영기간 및 시간(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간을 조금 더 늘어나길 바람.</li> <li>• 계절학교 운영시간이 5시로 늘어나길 바람.</li> </ul>
수업방법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간 상호작용 기회가 늘어나길 바람.</li> <li>• 사전에 학생의 취미나 적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 편성</li> </ul>
통학방법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버스 노선의 불편.</li> <li>• 차량 운행 시간이 잘 지켜지길 바람.</li> <li>• 등교 및 하교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요청.</li> <li>•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li> </ul>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알림장이나 메모로 학부모와 의사소통</li> <li>• 학습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가 있으면 좋겠음.</li> <li>• 교사와 학부모 간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지길 바람.</li> <li>• 학부모를 위한 아동의 관찰 일지 요청.</li> <li>•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시간이 있으면 좋겠음.</li> </ul>
선정조건 (2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람</li> <li>• 일반학생(비수급권자)을 뽑는 비율이 너무 적음.</li> <li>• 맞벌이 가정 부모들을 위해 비수급권자 비율을 늘렸으면 좋겠음.</li> </ul>
기타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단 내용을 알 수 있게 식단표를 주었으면 좋겠음.</li> <li>• 같은 반 친구들의 신상정보를 간략히 알 수 있으면 좋겠음.</li> <li>• 계절학교가 끝나고도 추후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시스템 필요.</li> </ul>

## IV. 논의

### 1. 계절학교 이용실태에 대한 논의

계절학교 이용실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계절학교에 장애자녀를 보내고 있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많았다. 이렇게 수급권자가 많은 이유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모에서 선정된 3곳 모두 기초수급권자에게 계절학교 이용의 우선권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 계절학교 운영 초기부터 세웠던 중요 원칙이기도 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경기도교육청의 늘해랑학교,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등 다른 교육청의 계절학교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현재 계절학교 학생들은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 후 비수급권자 아동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 비수급권자 일지라도 장애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큰 변화가 따르며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학교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34,050명, 과정 수 5598개였는데, 2017년에는 학생 50,000명 참여, 과정 수 15,000개를 계획하고 있어(국립특수교육원, 2012), 양적·질적인 확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절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의 실태 중 배치 유형과 장애 등급에 관한 것이다. 배치 유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학급 학생은 10% 내외였다. 장애등급은 1급이 절반 정도이고 2급이 34.0%인 것으로 보아 중도·중복장애 아동의 계절학교 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중장애 아동의 계절학교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부모가 방학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은 양육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는 계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연구자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방학 중 계절학교 지원을 받고자 하나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계절학교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또한 사설기관의 비싼 계절학교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절학교는 장애아동 부모 뿐 만아니라 교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광숙(2011)의 연구에서는 특히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계절학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

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방학 중에 계절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족이나 친척이 돌본다거나 치료실이나 복지관에 다니며, 또는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이나 친척이 돌봄으로써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치료실이나 복지관에 다닐 경우 양육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장애학생의 형제도 방학기간을 여가활동과 체험 및 학습 시간으로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장애형제를 보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형제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되어 전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 자녀의 형제자매 유무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방학동안 많은 시간을 장애학생을 보살핌으로써 비장애 자녀의 상대적 방치로 인한 애정결핍과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장애자녀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루한 생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증폭 될 수 있다(신일근, 2009). 또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 자녀를 계절학교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1순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2순위가 방학 중 자녀보호, 3순위가 학부모의 시간활용으로 나타나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절학교를 보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계절학교 반 편성 인원의 경우 기관에 따라 그 기준과 교사의 배치 등에 차이가 있었다. 적절한 성과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부모들이 계절학교에 보내는 첫 번째 이유로 꼽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적절한 통합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계절학교 참여로 인해 학부모가 얻게 된 가장 좋은 점으로는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운영목적(교육과학기술부, 2008)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최정자(2010)의 연구,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용식(2011)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에 공감하는 운영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간활용에 대한 필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계절학교 참여로 인한 자녀 입장에서 얻게 된 가장 좋은 점은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사회성 향상, 정서적 안정 효과를 언급하였다. 이는 학부모가 계절학교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지역사회 적응 및 체험학습’ ‘자립생활’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계절학교 만족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 계절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가 계절학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며, 자녀들도 흥미로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 점은 학부모 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며, 학부모와 그 자녀의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광숙(2011)의 연구에서도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학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개인의 특성과 요구 사항이 다양하여 모든 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절학교 종료 후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 결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나 앞으로도 학부모와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후 학부모 간담회 등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 역시 위탁 운영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선옥(2013)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내용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렸다. 이 결과는 각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지역 사회체험학습, 교과학습, 직업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절학교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계절학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은 각 지역교육청마다 지역특성과 참여대상,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과 안전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구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의성교육지원청은 2014년 여름 계절학교에서 119안전센터교육을 실시하였고(의성신문, 2014. 08. 29), 인천남부교육지원청(ICE뉴스, 2013. 8(133호))은 2013년 여름계절학교에서 예술을 테마로 문화체험활동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7년에 계절학교 과정수를 15,000개를 계획(국립특수교육원, 2012)하고 있어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계절학교가 진행되는 장소와 환경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절학교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양호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관을 이용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학기가 종료된 기간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3.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논의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알아본 결과 운영기간은 대부분 4주를 선택하였고 운영기간이 긴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학부모가 원하는 반 편성 인원은 5명에서 10명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 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만족할 만한 상태이며, 법정정원 내외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정원 준수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계절학교를 통해 만나는 또래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거기에서 오는 사회성 발달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 편성 기준에 대하여는 학년별로 또는 학년 구분 없이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계절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A기관의 교사는 대부분 특수교육과 학생이다. 학부모들은 특수교육과 학생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희망하는 교사로 현직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랐다. 이와 같은 계절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용식(2011)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현재 계절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특수교육과 학생과 치료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현직교사의 참여 확대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계절학교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선정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계절학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는 제한적이다. 아동 선정 역시 수급권자 우선권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서 비수급권 학부모의 경우 초조하게 방학을 기다리게 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선정 시 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학교 인원과 기관을 늘려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실제로 각 기관의 계절학교 추첨 때가 되면 학부모들끼리 선정과 탈락이 화제가 되며, 계절학교의 추첨에서 떨어지면 차선책으로 다른 기관들을 찾느라 매우 분주하다. 한 가정의 쌍둥이 형제가, 또는 한 가정의 형제자매 모두가 장애를 가진 경우, 어느 한 아이는 계절학교에 붙고 다른 한 아이는 계절학교 선정에서 탈락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어머니도 만난 적이 있다. 계절학교 수용인원의 문제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수행을 위해 계절학교 운영 기관의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계절학교 운

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각 기관에서는 더 나은 계절학교 운영을 위해 계절학교 종료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었다. 종종 아동들이 많아 계절학교에서도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의 의견처럼 교육청의 지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계절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공교육 기관을 이용하여 계절학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원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의 교육원이나 수련원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 이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현재 수급권자에게 계절학교 선정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중증장애 아동의 비율이 높다. 계절학교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절학교는 부모와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 경감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연장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계절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출석과 안전관리, 수업시간 준수, 교사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자녀의 계절학교 흥미도도 매우 높다. 다만 계절학교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 내용의 적절성이나 프로그램 구성 시 수요자의 의견 반영 정도에 관하여는 긍정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계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정리한 결과 학부모들은 계절학교 기간이 좀 더 긴 기간을 선호하였다. 비수급권 아동에게도 동등하게 계절학교 참여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반편성은 법정 정원을 따르되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제고해줄 것 원하며, 지역사회 적응 및 체험학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길 바라고 있다. 계절학교 교사로는 특수교육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현직교사와 치료사의 참여도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계절학교 기간 동안 자녀들의 활동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참관수업이나 전문가 참관 수업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절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계절학교의 효

울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선경 (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7-35.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원 (2012). **제4차('13~'17)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기초연구**. 아산:국립특수교육원.
-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366-375.
- 김용식 (201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계절학교 참여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광숙 (2012). 방학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특성.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말순 (2003). 특수학교 학생의 여가실태에 관한 연구: 춘천시 소재학교의 겨울방학동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일근 (2009).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본 정신지체학생의 방학 중 여가생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0(1), 343-362.
- 양귀화 (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어용숙, 윤치연 (2008). 일상생활의존도와 가족 대처자원이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2), 167-183.
- 여선옥 (2013)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지원센터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재혁, 김희영, 이종화 (2007).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3(1), 5-12.
- 전대준 (2005).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방학중 여가활동으로서의 탁구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정자 (2010).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실태와 학부모의 요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진희 (1994). 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에 관한 일 연구: 서울지역의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여가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혜경 (2005). 정신지체아의 방학 중 여가활동 실태와 부모의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5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방학중 계절학교 사업계획.” 2013. 5. 3. 보도자료. [http://enews.gen.go.kr/V3/index.php?wbb=md.view.bo\\_id:11;page::q:계절학교;search:wr\\_subject;uid:299788sid=15&#](http://enews.gen.go.kr/V3/index.php?wbb=md.view.bo_id:11;page::q:계절학교;search:wr_subject;uid:299788sid=15&#)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정책실명제 서업관리이력(특수-늘해랑). 출력일. 2015. 8. 25.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060070020000000&act=view&bbsMasterId=BBSMSTR\\_000000013837&bbsId=108531](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060070020000000&act=view&bbsMasterId=BBSMSTR_000000013837&bbsId=108531)
- 경상북도교육청영덕교육지원청(<http://www.yde.go.kr/>)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여름계절학교 개최.” 2014. 7. 24. 보도자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http://www.pohang-e.go.kr/>).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겨울계절학교 계절학교.” 2015. 1. 5. 보도자료.
- 영동-INT(등록일 2015. 1. 15.) “강릉 방학 특수교육 가온누리학교 호응.” [http://www.cjhelloworld.com/CJH\\_ZoneCast/ZoneCast\\_News\\_View\\_xml.asp?Ls\\_Code=121513](http://www.cjhelloworld.com/CJH_ZoneCast/ZoneCast_News_View_xml.asp?Ls_Code=121513)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http://www.nambu.ice.go.kr/>). “대한민국, 예술을 맛보다”성료.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계절학교 성공리에 마쳐.” 2013년 8월 ICE뉴스, 2013. 8(133호).
- 의성신문(2014. 8.29).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여름계절학교 특기를 계발 신장하고 진로 직업교육의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http://uiseongnews.com/default/article\\_print.htm?board\\_data=aWR4JTNEMzA3NTQ...](http://uiseongnews.com/default/article_print.htm?board_data=aWR4JTNEMzA3NTQ...)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Seasonal School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Kim, Sunhee**

Gwangju Siloam Center

**Jeong, Eunhee**

Chosu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parents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for seasonal schools and analyze their requirements. This is a research study of a total of 253 parents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ttending the seasonal schools of the three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mission to seasonal schools is preferentially given to beneficiaries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Seasonal schools are estimat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social development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tress relief of their parents, and formation of basic life habits of students through extending school life. Second, par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seasonal school, particularly with management of attendance and safety, and compliance of teaching time. Student's interest in seasonal school is also very high. However, they demand that their opinions be reflected in school programs. Third, They request the extension of seasonal school term, intergration program for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community adjustment, equal opportunity to enter seasonal school for non beneficiari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arents are content with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guidance at work, they expect in-service teachers to be involved in the school. The parents want to evaluate the seasonal school throughout classroom observation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t facts which derive from the results mentioned are discussed.

**Key Words** : seasonal school,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atisfaction of parents

---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